

2015년 3월 30일 새벽말씀

금주의 말씀은 ‘은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은밀하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금방 눈에 띄여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시고, 이상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은 그런 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신은 다릅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이고, 신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주권입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

여러분도 은밀하게 해 보십시오. 크게는 못 해도 작은 대로 하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밌을 뿐만 아니라 멋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말없이 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도 물론 신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러하지만, 은밀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은밀하게 하시고, 또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이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조용하게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성경도 은밀하게 누설해 났는데, 연구하다 보면 내 표현도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구나. 예언도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예언해 났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래도 그 분에게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니 그 일을 안 해 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은밀한 것에 대해서 그 단어만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멋멋하게 해 버리고 칭찬 받을 것은 받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그림을 그려도 추상화로 그릴 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를 써도 김정희의 추사체같이 필기체로 쓰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은밀한 것이 멋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자연조경으로 평가하면, 자연스럽게 한 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대리석을 깎아다 놓은 딱딱한 것은 앉기에는 좋지만 쳐다볼 때는 눈에 거슬려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놓으면 작품을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이 은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럴진대 하나님은 역시 주권입니다.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 큰 주권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주권을 정말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런 큰 사명을 갖고 왔어도 은밀하게 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막 보고, 깔보고 짓밟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권 부릴수록 더 나름대로 꿀뜰기도 주권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부리니까, 나름대로. 그런 입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 은밀하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 사람을 통해서 은밀하게 표현하시는 모습들이, 이런 표현으로서 합니다.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지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림 그런 것은 자기가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가는 그릴 때 머리 아프게 생각하며 그렸는데 “저것은 이것이다.”하고 가면 알미운 것입니다. 원래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작품을 몇 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 가르쳐 주면 평생이 가도 모릅니다.

여기도 내가 ‘낙타공원’이라고 했는데, “낙타공원이 뭐냐? 벽화다.” 그랬습니다.

‘공원’ 하고, ‘벽화’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벽화! 이런 벽화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벽화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려면 100만년은 걸릴 것입니다. 흙이 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에 과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과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감동, 무지하게 큰 것입니다.

해 놓고서 얼마큼 가치 있게 써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저기는 특별한 길을 내서, 꿀 틀린 사람에게는 안 해 주고, 감탄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도해서 보여 주고 그럴 것입니다. 감탄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내자들이 있어서 아무나 안 보여 주고, 그냥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작품이 두 점 있습니다. 구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려면, 저런 것을 사다 놓으려면, 어느 회사에서 책임지고 할지라도 100억은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다 놓기까지 하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기계 중에 저것을 들고 올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저기에다 물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로 봐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소나무에도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시다. 못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나무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돌을 보고 놀라는 사람, 여기 지역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잔디밭을 보고 놀라는 사람, 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놀랍니다. 놀라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물의 가치를 보여 줘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물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물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다 판 데로 빠져 버립니다. 그 물만, 내가 파이프를 묻은 그 물만 들어갑니다. 샘이 두 개

입니다. 손가락만 하게 파 놓은 그것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못 들어갑니다.
일절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물은 통이 작으니까, 호스가 작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래! 나의 기쁨하자.

♪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뢴 마음뿐일세

길도 아닌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금주 말씀은 은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밀하게 늘 우리 옆에 따
라 다닌다, 그 말입니다. 늘 우리의 일들을 살피며, 죄를 지어서 심판하려고
따라다니시는 것보다 무엇을 혹시 도와줄 것이 없는가 하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 말씀도 은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인지. 숨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
라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며, 은밀한 자체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런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채워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딱딱하게 살지 말고, 나타나서 살지 말고, 늘 자기의 순수한 그 세계
가운데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평강과 의와 공의와 진리로 함께하시고, 이곳을 중심한 전국과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합당하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
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욱 증거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일을 속속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민족
에게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오늘은 자연 성전의 서편 낙타벽화에서 일을 해서 일단 모두 마쳤습니다. 우
리가 수고한대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밀하신 하나님에 대해
서 깨닫고 알았습니다.

뛰는 자에게 기적이, 달리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
게는 항상 마음만 기쁘지 실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뛰고 달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곳 중심한 전국과 온 지구촌의 섭리 나라를 길이 살피 주시고, 우리 아버
지를 영화롭게 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할 때 사고와 해됨과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